

---

## 노르딕 누아르(Nordic Noir) 속

### 여성의 역할 변화:

로재나에서 리스베트 살란데르를 거쳐 말린까지\*

하수정\*\*

---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유럽 범죄소설의 인기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비현실적으로 뛰어난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소설과 달리 인물 중심 구조에 사회비판적 성격을 띤 북유럽 범죄소설은 ‘노르딕 누아르’라는 별칭으로 분류되었다. 이 글은 노르딕 누아르의 기원과 특징을 살피고, 현실 반영에 충실한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 인물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르딕 누아르의 시초로 불리는 마이 세발과 페르 발뢰의 『로재나』를 포함해, 매년 북유럽 범죄소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유리엘 쇠상 수상작 중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수상작 중에 한국어로 출판된 모든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수상 작가의 성별, 각 작품의 화자/가해자/피해자의 수와 성비를 집계하고 벡델 테스트를 적용했다. 등장인물의 성비와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 통계를 활용해 확인하였으며, 마인드맵으로 각 작품의 인물 관계도를 그렸다. 역할 변화에 이정표가 되는

---

\*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북유럽연구소 소장

주요 인물의 경우 묘사를 따로 분석해 정성적 측면을 보강했다.

초창기 주로 피해자로만 그려지던 여성의 역할이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주도적인 인물, 남성으로 바뀌도 어색하지 않은 성중립적 인물이 늘었다. 2000년대 들어 피해자에 어린이, 청소년, 성소수자,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모두 아는 사이였던 것과 달리 여성 피해자는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거나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북유럽 사회 곳곳에 여성 진출이 늘고 평등이 확장된 지난 30여 년간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 인물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수동적 존재(주로 피해자)에서 적극적인 주체(가해자, 해결자)로의 변화뿐 아니라 늘어난 여성의 직업군, 가정과 조직 내의 역할과 문제해결 방식 등 사회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의 역할도 북유럽 사회와 함께 진화했다.

**주제어:** 북유럽 범죄소설, 추리소설, 노르딕 누아르, 로제나, 밀레니엄 시리즈, 유리열쇠상, 리스베트 살란데르

## 1. 들어가며

### 1.1 북유럽 범죄소설의 등장과 인기

북유럽 문학이 인기다. 21세기 들어 북유럽 소설이 유럽을 넘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Hundraåringen som klev ut genom fönstret och försvann)』, 『오베라는 남자(En man som heter Ove)』, 『밀레니엄 시리즈(Millenniumserie)』 등은 소설로 유명세를 탄 후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북유럽의 인기는 문학에 국한하지 않는다. 북유럽 디자인, 단순함을 최고의 미로 치는 북유럽식 미니멀리즘, 재료의 본래 맛을 살리고 생산 공정까지 요리의 과정으로 보는 뉴 노르딕 퀴진

(New Nordic Cuisine), 북유럽 가치를 담은 휴게(hygge)와 라곰(lagom),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복지국가, 북유럽 출신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 등 북유럽과 연관된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한국 문화의 인기를 통칭해 한류(韓流, Korean Wave)라 부르는 것과 비슷하게 북유럽 조류(Nordic Wave)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지난 10년간 형성되었다.

이 모든 분야에 앞서 일찌감치 주목을 끈 북유럽 문화 상품은 따로 있다. 바로 범죄소설이다. 북유럽 문화 중흥기의 불을 지핀 것은 장르 문학인 범죄소설이었다. 2010년 무렵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요나스 요나손(Jonas Jonasson)이나 프레드릭 베크만(Fredrik Backman)이 있기 전에 BBC의 형사 월랜더 시리즈로 유명한 헨닝 만켈(Henning Mankell), 해리 홀레 시리즈를 쓴 요 네스뵈(Jo Nesbø), 『밀레니엄 시리즈』의 스티그 라르손(Stieg Larsson)이 있었다. 이들의 작품은 마니아층을 형성해 각각 3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백만 권이 팔려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sup>1)</sup> 그 결과 과거 미국과 영국을 배경으로 한 탐정물이 북유럽 범죄물로 교체되고 있다. 노르딕 누아르는 현재 문학계에 있어 범죄소설이 가장 인기 있는 장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예다(Erdmann, 2009; Stougaard-Nielsen, 2016, p. 1에서 재인용).

북유럽 범죄소설은 한국에서도 인기다. 1992년부터 매년 북유럽 5개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를 통틀어 최고의 범죄소설에 주는 유리열쇠상(Glasnyckeln) 수상작은 물론이고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신진 작가의 작품까지 한해에도 몇 편씩 번역되어 독자를 만난다.

북유럽 범죄소설의 인기는 영상으로도 이어졌다. BBC 등에서 북유럽 범죄소설을 원작으로 TV 시리즈를 제작하거나, 미국의 주문형 콘텐츠 제작/공급 서비스인 넷플릭스도 북유럽 추리소설을 바탕으로 한 시리즈물을 계속 내놓고 있다. 《월랜더 형사(Wallander (2005-2010))》, 《더킬링(Forbrydelsen; The Killing (2007-2012))》, 《더브릿지(Broen; The Bridge (2011-2018))》, 《나

1) 유럽 대도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범죄소설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북유럽 작가의 작품이 무척 많다. 미국의 한 대형서점은 북유럽 범죄소설을 특정해 노르딕 누아르 또는 스칸디나비아 누아르(Scandinavian Noir) 코너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다.

의 다정한 마야(Störst av allt; Quicksand(2019))», 《특별 수사반 Q(Afdeling Q; Department Q(2013~2021))》 등의 범죄물은 유럽과 북미를 거쳐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 1.2 “노르딕 누아르”라는 별칭의 기원

‘노르딕 누아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들어서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of London)의 스칸디나비아 학부에서 북유럽 범죄소설을 ‘노르딕 누아르’라는 별칭으로 명명했고, 2010년 초 BBC에서 ‘노르딕 누아르: 스칸디나비아 범죄 소설 이야기(Nordic Noir: The Story of Scandinavian Crime Fiction)’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영국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Garcia, 2016). 이어서 2012년 영국 가디언의 텔레비전 비평가인 샘 윌라스톤(Sam Wollaston)이 BBC4에서 방영한 덴마크 제작한 TV 형사 시리즈물인 《더 킬링(The Killing: Forbrydelsen II)》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르딕 누아르를 언급했다. 윌라스톤은 북유럽의 경찰 수사 방식을 설명하며 이 단어를 반복해 사용했다. 윌라스톤은 노르딕 누아르의 특징으로 암울한 분위기와 인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 구조를 꼽았다(Peacock, 2014: Hayward & Hall, 2020, p. 2에서 재인용).

과거 추리소설 혹은 탐정소설은 문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펄프픽션이라 불리는 싸구려 통속 소설에서 문학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여진 과정이 추리소설에서 범죄소설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영국 출신 시인 오든(W. H. Auden)은 추리소설과 범죄소설의 차이에 대해 “카프카의 <소송>은 죄는 분명하되 범 죄는 분명하지 않은 예술 작품인 반면, 추리소설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대거상과 에드거상을 모두 수상한 추리소설 작가 줄리언 시먼스(Julian Symons)는 스스로를 추리소설 중독자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추리소설을 섭렵한 작가이기도 한데, 그는 추리소설이 범죄소설로 진화하는 역사에 대해 논하며 추리소설은 수수께끼에 관심을 쏟고 범죄소설은 성격 묘사에 관심을 쏟는다고 말했다(줄리언 시먼스, 2012, p. 32).

<표 1> 추리소설과 범죄소설의 요소별 구분에 따른 노르딕 누아르의 해당 여부

구분	추리(탐정)소설	범죄소설
플롯	밀실 구조 안에서 언어적, 법의학적 속임수에 기반해 거꾸로 되짚어 오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인물의 심리나 상황에 기반해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탐정	직업 형사(아마추어 탐정이 주체로 우연히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 줄거리의 중심에 서 있으며 예리한 통찰력과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탐정이 없는 경우도 많다. 뛰어난 추리력을 갖고 있다가 보다 어찌다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수법	기묘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수법이 등장하며 때로는 대단히 기발한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보통 일반적인 수법이 쓰이며 수법이 핵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의학적 세부 사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다.
단서	추리의 핵심으로 보통 10여개의 단서가 주어지며 탐정이 그 의미를 해석한다.	추리 소설에서 쓰이는 용도의 단서는 없는 경우가 많다.
인물	주인공인 탐정만 상세히 묘사된다. 그 밖의 인물은 플롯에 종속된다.	등장인물의 삶이 이야기의 기반이며 범죄 전후의 삶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배경	대체로 범죄 이전에 벌어진 일로 제한된다.	줄거리와 범죄 자체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정 방식의 삶이 특정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회적 태도	보수적이다.	제도, 정의, 사회 운영 방식에 의문을 던진다는 면에서 때로는 급진적이다.
수수께끼의 가치	탐정이 풀어내는 범죄의 수수께끼가 이야기의 핵심이다.	독자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인물과 상황으로 그 가치가 크지 않다.

출처: 범죄 소설과 추리 소설 분류 표 요약(줄리언 시먼스, 2012, pp. 254-255).

시먼스의 분류에 따르면 노르딕 누아르는 범죄소설에 속한다. <표 1>의 구분 항목 중 탐정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범죄 소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르딕 누아르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뛰어난 탐정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평범한 형사가 팀워크를 이뤄 사건

을 해결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 형사와 그의 동료, 피해자와 가해자 등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든과 시몬스의 해석을 기준으로 노르딕 누아르를 추리 소설이 아닌 범죄소설 또는 경찰소설로 분류하는 이유다. 초기 노르딕 누아르의 주인공은 대부분 경찰 또는 형사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기자 또는 피해자 등 수사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 사건을 파헤치는 경우도 등장한다. 특출 난 추리력을 지닌 탐정과 이에 필적하는 범인의 대결 구도로 이끌어가는 추리소설과는 달리 노르딕 누아르 속 사건을 해결하는 주인공은 때로 무력하며, 수사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이나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노르딕 누아르가 기존 추리소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자 추리 소설로 분류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인물 중심 구조를 꼽는다. 사건과 배경이 분리되어 수수께끼가 중심인 추리소설과는 달리 노르딕 누아르는 등장인물이 속한 배경, 가정 환경, 갈등 구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추리소설과 범죄소설이 뒤섞여 등장하고 둘 사이의 구분이 애매하던 시기, 1965년 노르딕 누아르의 시초라 불리는 ‘형사 마르틴 베크 시리즈’가 등장한 이후부터 북유럽은 인물 중심의 범죄소설이 절대 강세였다. 노르딕 누아르는 수수께끼 해결이 아닌 등장인물의 삶이 이야기의 기반이며 범죄 전후의 삶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노르딕 누아르의 특징 또 하나는 철저한 현실 반영과 사회 고발이다. 노르딕 누아르는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기보다는 인물의 심리와 환경을 자세히 묘사해 사회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초인적인 추리력을 지닌 여타 추리소설 주인공과 달리 노르딕 누아르의 주인공은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만도 한 아픔이다.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는 대부분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지 못해 가족과 사이가 소원하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실수로 밤잠을 설치며, 중요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 범죄자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 과거 학대당한 경험을 극복하지 못했거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 경우, 복지제도의 미비나 사회의 무관심이 배양한 가정 학대가 불러온 비극, 고립된 지역이나 사이버 종교의 폐쇄성 등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고발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삶이 담고 있는 문제,

개인과 개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힘의 역학, 기관 대 기관 또는 개인 대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권력의 불균형 등 그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해 가며 사회의 단면을 비춘다.

각각 그린란드 원주민과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펼친 덴마크 작가 페터 회(Peter Høeg)나 유시 아틀레르올센(Jussi Adler-Olsen)의 작품은 사회사 연구 자료로 쓰일 정도로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다(유시 아틀레르올센, 2019, p. 418).

노르딕 누아르에 등장하는 범죄만 보아도 사회상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과거 실종, 학대, 납치, 유괴 등의 익숙한 범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작품에는 조직범죄, 마약, 금융 범죄, 해킹, 테러 등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한다. 범죄자를 그저 광인이나 악인, 사이코패스 같은 단순한 인물 유형이 아닌 여러 상황과 트라우마로 점철된 복합적 인물로 그리는 것도 최근의 변화다. 한편 최근의 노르딕 누아르는 북유럽 고유의 가치와 문화를 침식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시대를 꿰뚫는 통찰대신 기회의 공정, 도시 엘리트의 탐욕 같은 상징적 주제를 작가주의 스타일로 그려내며 정작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Hayward & Hall, 2020, p. 15).

한 지역의 특정 장르 문학이 노르딕 누아르라는 명칭으로 따로 분류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가치를 인정받는 까닭은 북유럽 범죄소설이 단순히 두뇌 게임이나 추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반영하고 시스템을 고발하는 사회 소설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 2. 선행연구

최근 십여 년 사이 범죄소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국내에서 출간된 논문만 살펴보아도 한국 작품은 물론 세계 각지의 범죄소설에 대한 연구 또는 비교 연구가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나라별 연구에 더해 동아시아나 마그레브 등 지역으로 묶어 나온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인기인 일본 추리소설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추리소설을 다시 소재의 틀로 나눠 역사 추리소설, 송사소설계 추리소설과 정탐소설계 추리소설, 스파이 소설 등으로 분석한 연구, 소설 속에 등장하는 특정 시대를 주제로 한 연구도 있다. 1930년대 추리소설, 근대 계몽기 추리소설,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 추리소설 연구, 1970~1980년대 일본 추리소설, 일제 식민지 탐정소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추리 소설, 21세기의 안락의자 탐정 등 다양한 시기를 주제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역시 한국과 일본을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다.

다양한 시기와 작품을 대상으로 문학 속 성별 고정관념을 다룬 연구는 여러 건 찾아볼 수 있었다. 그중에 추리소설 속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계정민(2010)의 초기 영미 추리소설의 성 정치학 연구와 유인혁(2018)이 쓴 범죄, 지리, 젠더를 근대적 탐정소설의 세 가지 키워드로 두고 정리한 논문도 참고했다.

특정 작가의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도 여럿 있다. 방정환의 탐정소설 연구, 마쓰모토 세이초 추리소설의 한국 수용, 일본의 사회와 추리소설 <화차> 고찰, 셜록 홈스의 관찰과 추리의 기술 등 유명 작가 또는 유명 작품을 단독 주제로 삼아 분석하는 등 개별 작가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고 있다.

북유럽 소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 중 북유럽 범죄소설을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스티그 라르손의 소설 <밀레니엄>을 주제로 오원환(2013)과 홍재웅(2019)이 쓴 논문이 두 편 있으나 두 편 모두 소설로서의 작품보다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해외에서는 북유럽 범죄소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라 노르딕 누아르라는 단어를 제목에 단 책 만해도 여러 권이다. 주로 북유럽 범죄소설의 안내서와 비슷한 형식으로 주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백과사전 형식으로 구성된 책도 있고 노르딕 누아르를 이끈 대표적인 형사 마르틴 베크(Martin Beck), 해리 홀레(Harry Hole), 쿠르트 발란데르(Kurt Wallander) 등의 인물 분석을 담은 책도 있다.

학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노르딕 누아르의 매력, 노르딕 누아르의 범죄학적 비판,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본 노르딕 누아르의 무과실 살인 등 장르 문학인 북유럽 범죄소설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다. 특히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은 노르딕 누아르의 중흥기를 이끌며 각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촉발했다. 밀레니엄 시리즈가 가져온 영향,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주요 인물이 어떻게 각색됐는지, 리스베트 살란데르라는 독특한 여성 캐릭터가 불러온 논쟁과 사회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북유럽은 물론 동유럽과 남미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어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북유럽 범죄소설의 전반적인 계보를 훑어가며 여성 캐릭터의 진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해외 연구를 살펴보아도 영화 속 인물이나 리스베트 살란데르와 같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주로 영화나 TV 범죄물 속 여성의 역할을 남성과 비교하거나 특이점을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북유럽 범죄소설 전반을 연구 대상에 두고 연대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존 연구 대부분 이론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본 연구는 통계를 활용해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해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했다.

### 3. 연구 내용과 방법

#### 3.1 노르딕 누아르와 「로제나」

노르딕 누아르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인기 있는 범죄 장르다. 가식 없고 사회 비판 성격이 강한 서술 방식에 특유의 어둡고 불운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Hill & Turnbull 2017; Hayward & Hall, 2020, p. 2에서 재인용). 등장인물의 복잡한 심리와 우울한 미장센으로 유명하며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 그리고 세계적 성공을 거둔 텔레비전 드라마로 뻗어나갔다. 노르딕 누아르는 과거 10년이 조금 넘는 동안 지역에 한정된 틈새시장에서 국제적 현상으로 급속히 퍼졌다(Hayward & Hall, 2020, p. 1).

노르딕 누아르로 분류되는 첫 번째 작품은 스웨덴에서 나왔다. 1965년 마이 세발(Maj Sjöwall)과 페르 발뢰(Per Wahlöö)가 쓴 총 열 권의 ‘형사 마르틴 베크 시리즈’의 첫 권인 『로재나』를 노르딕 누아르의 시초로 본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북유럽 범죄소설은 존재했다. 1950년대 스웨덴에는 스티그 트렌테르(Stieg Trenter), 마리아 랑(Maria Lang), H.K. 뢰블롬(Rönblom)과 같은 추리소설 작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작가의 소설은 수수께끼를 푸는 식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설록 홈스 류의 영국식 추리소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로재나』를 노르딕 누아르의 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노르딕 누아르라고 분류되는 북유럽 범죄소설의 특징이 『로재나』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범죄소설 평론가인 제이크 케리지는 세발과 발뢰를 두고 “노르딕 누아르라는 장르를 만들어 낸 커플(The couple who invented Nordic Noir)”이라고 불렀다. 케리지는 같은 제목의 기사에 노르딕 누아르의 특징을 다루며(Kerrige, 2015) 그 밖에 여러 북유럽 범죄소설 작가가 『로재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썼다.

형사 쿠르트 발란데르 시리즈<sup>2)</sup>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스웨덴의 범죄소설 작가인 헤닝 만켈은 마르틴 베크 시리즈를 두고 그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시리즈”이자 “현대의 고전”이며 “이전 범죄 소설의 흐름을 깨고 새로운 스타일의 선구자가 되었다”라고 평했다(마이 세발·페르 발뢰, 2017, p. 430). 노르웨이의 스티븐 킹이라 불리는 요 네스뵈는 마르틴 베크 시리즈가 “범죄소설의 모범을 제시했다”며 “북유럽 범죄소설의 시작점”이라고 불렀다. 마르틴 베크 시리즈를 시작으로 노르딕 누아르는 경찰 소설 또는 형사 소설의 형식을 이어가고 있다.

『로재나』를 원형으로 삼은 노르딕 누아르는 영국과 미국에서 나온 여타 범죄소설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띤다. 보통 사람보다 확연히 뛰어난 추리력을 가진 탐정과, 화자이자 주인공을 돕는 보조 캐릭터가 쌍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는 영미식 추리소설과 달리 북유럽 범죄소설은 평범한 또는 여러 가지 결점을 지닌 형사를 주인공으로 하되 비슷한 동료 경찰과 함께 팀을 이뤄 수

2) 이후 BBC에서 드라마로 제작해 형사 월랜더로 더 유명해졌다.

사를 진행한다(The Economist, 2010).

헤닝 만켈은 “로제나의 수사관들은 평범한 인간들이다. 영웅적인 면모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들은 할 일을 하고, 신물을 느낀다. ... 진짜 사람 같은 경찰관들을 소설에서 본 것이 무척이나 신선한 깨달음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마이 세발·페르 발뢰, 2017, p. 17).

노르딕 누아르 속 형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사건 수사로 가족과 사이가 멀어지기가 다반사다. 형사로서의 경력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진다. 사건 현장을 쭉 둘러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회색 뇌세포’로 사건을 해결하는 영국식 추리소설 속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 마치 실제 수사 과정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해 난관에 부딪히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며, 동료들 위협에 몰기도 협업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북유럽 범죄소설 속 주인공은 뛰어난 추리력을 발휘하기보다는 평범한 수사력으로 범죄를 추적한다. 문학의 특성상 추리소설과 범죄소설을 금 곳듯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노르딕 누아르는 사건 그 자체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와 성격에 더 관심을 두는 범죄소설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만켈은 “사회의 거울로서의 범죄에 관해 쓰는 작가라면 누구나 조금쯤은 그들의 작품에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전까지 지어져 온 범죄소설의 경향과 단절한 작가였다”라고 평했다. 만켈은 세발과 발뢰가 미국 작가 에드 맥베인(Ed McBain)<sup>4)</sup>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두 사람은 “범죄소설이 사회 비판을 담는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당시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었다.”라고 했다(마이 세발·페르 발뢰, 2017, p. 14). 범죄소설 비평가이

- 
- 3)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에 등장하는 벨기에 출신 탐정 에르퀼 푸아로는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와 주변 인물의 증언을 토대로 추리해 사건을 해결한다. 푸아로식 추리 비결이 바로 ‘회색 뇌세포(The Little Gray Matter)’다. “단서는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나? 이 작은 회색 뇌세포 속에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단 말이지.” <빅토리 무도회 사건> p.189.
  - 4) 에드 맥베인은 미국의 범죄소설 작가이자 극작가다. 본명은 살바토레 엘버트 롬비노로 에드 맥베인은 ‘87분서 시리즈’를 발표할 때 쓴 그의 필명 중 하나다. ‘형사 풀름보 시리즈’와 히치콕 감독의 영화 <새>의 각본을 썼다. 1956년 <경찰 혐오자>를 시작으로 50여 편 넘게 이어진 ‘87분서 시리즈’가 대표작으로 이후 거의 모든 경찰 소설과 경찰 드라마에 영향을 끼쳤다.

자 스웨덴 룬드대학의 비교문학 교수인 세르스틴 베리만은 “세발과 발뢰의 소설이 과거 범죄소설과 다른 점은 의도적으로 스웨덴 사회의 비판적 지점을 포함했다는 것이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라고 평했다(Bergman, 2014).

마르틴 베크 시리즈의 부제는 ‘범죄 이야기’다. 작가인 마이 세발은 한국 어판 서문에서 “여기서 범죄란 말을 사회가 노동계급을 버렸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며 “페르 발뢰와 나는 ‘마르틴 베크’ 시리즈로 스웨덴 사회가 십 년에 걸쳐서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마이 세발·페르 발뢰, 2017, p. 7).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숨겨진 빈곤과 범죄를 통해 사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마르틴 베크 시리즈는 범죄 현장에 대한 묘사, 이동 거리, 에피소드 등을 모두 사실에 기반해 쓰였다.

만켈은 “뭐든지 가능한 철저하게 묘사하겠다는 (세발과 발뢰) 두 작가의 생각은 소설 전반에 구현되었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하다. 그들은 1960년대 중반 스웨덴의 여러 사회제도과 구조를 꼼꼼하고 믿을 만하게 묘포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평한다(마이 세발·페르 발뢰, 2017, pp. 12-13). 이후 작가들 역시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로 사회상을 충실히 반영하며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담는 노르딕 누아르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3.2 연구 목적

행복지수, 평등지수, 반부패지수 등 여러 사회지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북유럽은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출산율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1900년대 초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이래 지금까지 북유럽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성평등은 북유럽 안에서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지금이야 북유럽 어느 곳에서나 여성 대표를 만나는 것이 일상일 정도로 각 분야에서 여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북유럽 국가 대부분 본격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나선 것이 1970년대로,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러 각 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치 분야를 예로 들면 세계 최초의 민주 직선제 여성 대통령도 북유럽에서 나왔다. 아이슬란드의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Vigdís Finnbogadóttir, 재임 1980~1996)이다. 타르야 할로넨(Tarja Halonen)은 핀란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2000~2012까지 재임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1981년 의사였던 그로 할렘 브룬트란드(Gro Harlem Brundtland)가 수상이 되면서 북유럽에서 가장 먼저 여성 수상을 배출했다.<sup>5)</sup> 2003년 핀란드의 안넬리 툴리키 예텐메키(Anneli Tuulikki Jäätteenmäki)가, 2011년 덴마크의 헬레 토르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가 각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수상의 자리에 올랐다. 2023년 6월 기준 북유럽 5개국 중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총리가 여성이다<sup>6)</sup> 북유럽 5개국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후보 명부에 여성과 남성을 번갈아 올리는 지퍼 제도를 통해 의회 내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의 성비도 비슷하다.

모든 소설은 창작물이지만 동시에 사회를 담는 거울이기도 하다. 북유럽 범죄소설은 여러 작가가 밝히고 나섰듯 의도적으로 사회를 충실히 담아 때때로 사회사 연구의 자료로 쓰일 정도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 노르딕 누아르를 여타 추리소설 또는 범죄소설과 분명히 구분 짓는 특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노르딕 누아르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북유럽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소설 속 인물도 비슷한 수로 등장할까? 사건의 발생과 해결 과정에서 여성은 주로 어떤 역할을 맡을까? 전통적으로 피해자로 그려지는 여성이 노르딕 누아르 속에서는 다를까?

위와 같은 여러 질문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이번 연구는 북유럽 범죄

- 
- 5) 브룬트란드는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한 지도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주창한 인물이기도 하다.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위해 무분별한 성장 대신 환경, 사회, 경제를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주창했다. 당시 노르웨이 수상으로 WCED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브룬트란드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라고 부른다.
  - 6) 2023년 6월 현재 북유럽 5개국 총리는 다음과 같다.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핀란드)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요나스 가르 스토레(Jonas Gahr Store, 노르웨이), 카트린 야콥스도티르(Katrín Jakobsdóttir, 아이슬란드).

소설 계보와 그 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훑어가며 변하는 북유럽 사회를 짚어볼 것이다. 노르딕 누아르의 대표작을 연도별로 뽑아 분석하는 것은 북유럽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추적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영화 속 성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벡델 테스트(Bechdel Test)와 작가의 성비, 소설 속 등장하는 화자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통계와 인물 묘사를 분석해 시대 흐름에 따른 여성의 역할 변화를 실증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번 연구 주제는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의 역할 변화로 한정한다. 각 작품 내 주요 인물 성비를 통계로 정리해 분석하고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인물 관계도와 인물 묘사를 발췌해 보강했다. 이름도 없이 시신으로 등장하는 로제나부터,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스스로 복수극을 펼치는 리스베트 살란테르,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사로 등장하는 이민자의 후손 말린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거울처럼 반영한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는 북유럽 사회의 숨 가쁜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정량과 정성 기법을 모두 활용해 소설 속 여성의 역할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3.3 분석 대상 선정

북유럽 범죄 소설 속 여성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대상은 유리 열쇠상(Glasnyckeln) 수상작이다. 연구자가 임의로 작품을 선택할 경우 편견이나 취향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변별력 있는 외부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리열쇠상은 북유럽 추리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이다. 1992년부터 매년 북유럽 5개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를 통틀어 그해 최고의 범죄소설을 선발해 유리열쇠상을 시상한다. 뛰어난 추리소설을 꼽아 상을 주는 미국의 애드거상, 영국의 대거상과 비슷하다. 유리열쇠상은 미국의 추리소설가이자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대가라 불리는 대실 해밀(Dashiell Hammett)의 대표작 『유리 열쇠(Glass Key)』에서 따온 것으로 수상자는 유리 열쇠 모양의 상패를 받는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란 범죄나 폭력

을 묘사할 때 불필요한 수식을 배제하고 무미건조하고 신속하게 그리는 것으로 사실주의 경향을 띤다. 노르딕 누아르의 서술 기법은 초창기부터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다.

노르딕 누아르의 시작은 1965년 스웨덴의 세발과 발피가 쓴 『로제나』지만 이후 작품이 하나둘씩 쌓여 장르문학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90년대로 본다. 1965년을 『로제나』를 시작으로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드문드문 등장하던 범죄 소설은 1990년대 들어 양적으로 풍성해지고 독자층도 두터워졌다. 1970~1980년대 작품 중에 연구자가 임의로 분석 대상을 선정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작품의 선택 폭도 넓지 않다. BBC 드라마로 유명한 헤닝 만켈의 쿠르트 발란데르 형사 시리즈의 첫 작품이자 유리열쇠상의 첫 수상작인 『얼굴 없는 살인자(Mördare utan ansikte)』도 1991년에 나왔다. 이 무렵부터 고유의 특징을 인정받으며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북유럽 범죄소설을 통해 여성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북유럽 안팎으로 널리 권위를 인정받는 유리열쇠상 수상작을 분석 대상으로 1992년 첫 수상작부터 2022년 수상작까지로 한정했다. 다만 상징적인 비교지표로 최초의 북유럽 범죄소설로 꼽히는 1965년 작 『로제나』를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 3.4 분석방식

유리열쇠상은 1992년 시작돼 지난해인 2022년까지 총 31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 중 한국어로 출판된 것은 총 15권이다. 1992~1999년 사이에 출판된 것이 세 작품, 2000~2009년 사이가 일곱 작품, 2010~2022년 사이가 다섯 작품이다. 여기에 『로제나』를 포함해 총 16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992~2022년 사이 국내 출판된 총 15 작품과 『로제나』를 백델 테스트, 작가 성별, 화자/피해자/가해자 성별 집계, 여성 인물 묘사 연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여성 인물의 역할 변화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백델 테스트는 영화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 성평등이 구현되는지 확인하

는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만화가 엘리슨 벡델이 고안한 것으로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이 둘 이상 등장하나?”, “여성 인물끼리 이야기를 하는가?”, “이야기의 주제가 남성에 대한 것 이외의 것인가?” 하는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다. 벡델 테스트는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닌 주도적 여성 인물이 등장하느냐를 살피는 최소한의 지표다. 영화 콘텐츠 안에 젠더 균형을 확인하는 리트머스라고도 불린다.

먼저 유리열쇠상 수상작 중 한국어로 출판된 15 작품에 『로제나』를 포함해 총 16 작품을 대상으로 벡델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만 집계하는 벡델 테스트 결과로는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의 역할과 비중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몇 가지 분석 방식을 추가했다. 이야기를 이끌거나 서술하는 화자의 성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각각 조사해 통계를 냈다. 이를 통해 이야기 속에서 여성 인물의 등장 여부와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단순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작품별 화자-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마인드맵으로 그려 심층 이해를 도왔다. 관계도는 부록으로 첨부했다. 개중에 작품 속 여성의 역할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묘사나 설명이 있는 경우 본문 일부를 발췌해 덧붙였다.

추가로 유리열쇠상이 시작된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수상작가의 성별을 집계했다. 노르딕 누아르에서 여성 작가의 위상을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하기 위해서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작품만으로 작가의 성별에 따라 등장인물의 역할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참고로 삼기 위해 화자의 성별, 피해자/가해자의 성비 집계 표에 작가의 성별도 함께 표기했다.

## 4. 노르딕 누아르를 통해 본 여성의 역할 변화

### 4.1 범죄 소설 속 여성

최초의 추리소설로 불리는 작품은 1841년 발표된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이다.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해결자로 등장한다. 첫 번째

추리소설이 나온 지 200여 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특정 성별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해결자 위치에 두는 고정관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귀스트 뒤팽, 셜록 홈스, 에르퀼 푸아로, 필립 말로, 매그래 반장, 형사 콜롬보, 명탐정 코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건 해결자는 남성이었다. 그나마 대중에게 알려진 여성 해결자로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미스 마플이 유일하다.

19세기 말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1930년대 무성성이 강조된 나이 많은 비혼 여성이 등장하는 탐정 추리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스 마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젠더, 범죄, (여성) 탐정: 초기 영미 추리소설의 성정치학”을 연구한 계정민은 이조차도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인 동시에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여성으로 묘사된다고 추리소설에 시도된 젠더적 타협의 결과라고 보았다(조승예, 2018).

초기 추리소설에서 여성은 주로 피해자로 등장하며 범인 또는 가해자를 추론할 때에도 여성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된다. 남성이 범죄의 주체로, 여성은 비주체로 규정되는 범죄의 성별화 경향이 보편적 양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러한 구분이 가부장제가 규정한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의 수동성이라는 젠더 규범과 일치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서구에서의 성별화된 범죄 담론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새롭게 부상한 범죄학에 의해 과학적 사실로 승인되었다. 『여성 범죄자(The Female Offender)』에서 롬브로소(Cæsar Lombroso)와 페레로(William Ferrero)가 사례 조사를 통해 범죄는 남성적인 행위라는 판정을 내리고 여성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계정민, 2010, p. 932).

이같이 성별 고정관념은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반영했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상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을 장르의 특징으로 삼는 노르딕 누아르는 어떨까? 작품이 쓰인 시대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 해결자의 성별도 달라질 것인지가 이번 연구의 시작 질문이었다. 여성을 피해자, 남성을 가해자 또는 해결자로 보는 고정 성관념이 노르딕 누아르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변해왔는지, 해결자인 남성이 서술자로 등장하는 범죄 소설의 경향이 노르딕 누아르

에도 반영되었는지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4.2 백텔 테스트를 활용한 분석

영화 속 성평등을 가늠하는 지수인 백텔 테스트를 활용해 유리열쇠상 수상 작품을 분석했다. 백텔 테스트는 영화 속 여성 인물이 얼마나 자주, 주도적으로 등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백텔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해서 콘텐츠 안에 성평등이 구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이 인격적인 존재로 등장하는지, 여성 인물의 비중이 최소한은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최소한의 지표일 따름이다. 백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이야기 안에서 여성의등장이 최소한으로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여성의 역할이 축소, 무시되었거나 남성 위주의 영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번 연구 대상은 영화가 아닌 문학이나 소설 역시 영화와 같은 완결된 이야기로 내러티브 전반에 여성 인물의 참여 정도를 1차로 확인하기 위해 백텔 테스트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아래 백텔 테스트 질문 각각에 해당하면 “o” 해당하지 않으면 “x”로 표시했다. 1965년 『로재나』는 수상작은 아니나 노르딕 누아르의 원형으로 불리는 만큼 비교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제일 윗줄에 넣었다. 1993~2019년까지 한국어로 출간된 유리열쇠상 수상작 15편을 백텔 테스트로 분석해 결과는 <표 2>와 같다.

**질문 1.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이 둘 이상 등장하나?**

**질문 2. 여성 인물끼리 이야기를 하는가?**

**질문 3. 이야기의 주제가 남성에 대한 것 이외의 것인가?**

백텔 테스트를 통과하는 할리우드 영화가 절반 수준<sup>7)</sup>인 것과 달리 분석

---

7) 백텔 테스트는 여성이 독립적인 존재로 이야기에 등장하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2000년대 이후 작품 중에도 백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할리우드 영화가 상당수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 Creative Artists Agency)와 민간연구소 시프트7이 2014~2017년 흥행한 미국

<표 2> 유리열쇠상 수상작 벡델테스트 결과(1992~2022)

연도	작가 성별	작가	제목	질문 1	질문 2	질문 3
1965	여+남	마이 세발, 페르 발뢰	로제나	○	x	x
1993	남	페터 회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	○	○
1997	여	카린 포숨	돌아보지 마	○	○	○
1998	남	요 네스비	박쥐	○	○	x
2002	남	아날두르 인드리다손	저주받은 피	○	○	○
2003	남	아날두르 인드리다손	무덤의 침묵	○	○	○
2005	남	안데슈 루슬룬드, 버리에 헬스트럼	비스트	○	x	x
2006	남	스티그 라르손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	○	○
2008	남	스티그 라르손	벌집을 발로 찬 소녀	○	○	○
2009	남	요한 테오린	가장 어두운 방	○	○	○
2010	남	유시 아틀레르올센	유리병 편지	○	○	○
2012	남	에리크 발뢰	일곱 번째 아이	○	○	○
2013	남	예른 리르 호르스트	사냥개자리	○	○	○
2017	여	멜린 페르손 지올리토	나의 다정한 마야	○	○	○
2018	여	카밀라 그레베	애프터 쉬즈 곤	○	○	○
2019	여	스티나 약손	실버로드	○	○	○

대상이 된 16편의 북유럽 범죄소설 중 벡델 테스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 세 편뿐이다.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이 둘 이상 등장하는지를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쉽게 충족한다. 피해자가 되었던 화자가 되었던 여성이 둘 이상은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수사 주체 즉 경찰이나

영화 350편을 분석한 결과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모두 192편으로 55%다. 한국의 경우 2004~2018년 ‘천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 15편 중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도둑들>, <괴물>을 포함해 6편이다(김윤지, 2019).

할리우드 영화의 벡델 테스트의 결과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echdeltest.com/>

형사 중 여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수사 과정에 증인 신문이 포함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1965년 작품인 『로재나』는 백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로재나』에 등장하는 여성은 이름 없는 시신으로 등장하는 로재나와, 함정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 부른 여자 경찰, 과거 피해자 등이다.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신문 역시 남성 형사에 의해 이루어져 여성끼리 대화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 출판된 유리열쇠상 수상작 15편 중 백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작품은 총 두 편이다. 1998년 출간된 요 네스비 첫 작품 『박쥐』는 세 번째 질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화자인 수사관 헤리 홀레가 본국인 노르웨이를 떠나 호주에서 수사를 하는데 동료 수사관과 용의자 대부분이 남자다. 여성 피해자가 시신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주변 인물 사이의 대화도 없다. 두 여성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 두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대화의 주체가 피해자의 연인과 가해자의 모친으로 대화의 주체가 남성(가해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인 “이야기의 주체가 남성에 대한 것 이외의 것인가?” 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5년 수상작인 안데슈 로슬룬드와 버리에 헬스트럼의 『비스트』는 질문 2와 3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비스트』는 아동 연쇄 성폭행 살인범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수사관과 범인 모두 남성이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등장인물의 배우자인 여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아니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등장할 뿐 여성 인물끼리 대화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분석 대상 중 세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텔 테스트를 통과했으니 30여 년의 간극이 있는 『로재나』와 이후 작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백텔 테스트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해당 결과만으로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의 역할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4.3 화자의 수와 성비 분석

등장인물의 실질적인 역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왔다. 먼저 화자의 수와 성비를 집계했다. 2014~2017년 사이 미국 영화 흥행작 350편을 벡델 테스트로 분석했던 CAA와 시프트7은 영화 주인공 성비에 따른 흥행 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 주도 영화(female-led)’라는 개념을 도입했다<sup>8)</sup>. 주인공의 성별은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는 틀이 된다. 영화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것이 화자이므로 분석 대상작의 화자 성비를 확인하는 것은 여성 인물의 비중을 확인하는 유효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3> 유리열쇠상 수상작 화자의 성비 (1992~2020)

연도	작가 성별	작가	제목	화자	
				F	M
1965	여+남	마이 세발, 페르 발뢰	로제나		1
1993	남	페터 회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1	-
1997	여	카린 포슈	돌아보지 마	-	1
1998	남	요 네스뵈	박쥐	-	1
2002	남	아날두르 인드리다손	저주받은 피	-	1
2003	남	아날두르 인드리다손	무덤의 침묵	1	1
2005	남	안데슈 루슬룬드, 버리에 헬스트룀	비스트	-	2
2006	남	스티그 라르손	여자를 증오했던 남자들	1	1
2008	남	스티그 라르손	별집을 발로 찬 소녀	1	1
2009	남	요한 테오린	가장 어두운 방	1	1
2010	남	유시 아틀레르울센	유리병 편지	-	1
2012	남	에리크 발뢰	일곱 번째 아이	1	-
2013	남	예른 리르 호르스트	사냥개자리	1	1
2017	여	멀린 페르손 지올리토	나의 다정한 마야	1	-
2018	여	카밀라 그레베	애프터 쉬즈 곤	2	1
2019	여	스티나 약손	실버로드	1	1
				11	14

8) ‘여성 주도’는 세계적 조사업체인 닐슨컴퍼니의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쓰는 개념으로 공식 배포 자료나 출연진 자막에 여성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경우 ‘여성 주도’ 영화로 분류한다(shift7, 2018).

범죄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인 화자의 성별이 매우 중요하다. 사건을 해결하는 이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성을 범죄의 주체로, 여성을 비주체로 규정하는 범죄의 성별화 경향에 더해 범죄소설에서는 남성을 해결자로 보는 고정관념이 짙다. 범죄소설은 사건의 발생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화자가 된다. 그 결과 주로 남성이 화자의 역할을 맡아왔다. 여성이 화자로 등장하면, 즉 ‘여성 주도’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성이 해결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이더라도 화자로 등장하면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춰왔던 이야기 전개가 피해자의 관점으로 다시 쓰인다. 아울러 여성이 화자가 되면 벡델 테스트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할 분량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따라서 화자의 성별을 살펴보는 것은 범죄소설 속 여성의 역할 변화와 비중을 살펴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다.

『로제나』의 등장인물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남성 일색이었다. 주인공을 위시한 수사팀 전원이 남자였고, 작품의 중반이 넘어서야 이름이 밝혀지는 로제나는 시신으로 등장한다.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등장하는 추가 피해자, 범인을 유인하는 함정 수사를 위해 수소문해 동원한 여자 경찰이 피해자가 아닌 유일한 여성 등장인물이다.

우리열최상 수상작 15편의 화자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화자의 수가 11:13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2000년대 이전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1993년 수상작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한 편뿐이다. 여기서 스밀라라는 화자이자 사건의 해결자다.

2003년 수상작인 『무덤의 침묵』부터 두 명의 화자 구성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사건의 해결자인 형사와 피해자가 각각 화자로 등장한다. 어느 날 우연히 연고 없는 시신이 발견된 이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를 추적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수사 과정이 번갈아 진행된다. 두 명의 화자가 각각의 이야기를 이끈다.

2006년 수상작인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시리즈 1편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의 리스베트 살란데르와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는 어찌 보면 과거 설록 홈즈와 존 왓슨처럼 짝꿍이 되어 의견을 주고받고 사건을 해결하며 소극

적으로나마 서로의 삶에 개입한다. 홈즈가 대인 관계에 미숙한 대신 월등한 추리력을 갖추었던 것처럼, 리스베트는 아스퍼거 증상을 보이는 동시에 해커로서 뛰어난 정보력을 갖추고 있다. 물리적 싸움에서도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보다 뛰어나다. 왓슨과 미카엘은 주인공의 조력자이자 설명자다. 다만 미카엘이 왓슨에 비해 좀 더 주도적이고 역할의 비중이 크다.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시리즈 이후부터는 해결자 단독 관점에서 해결자와 피해자 양쪽이 평행으로 이야기를 이끌다가 마주치는 식의 서사가 대세가 되었다. 형사가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단독 서술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서사가 강해졌다.

<표 3>의 화자의 성비 추이를 보면 초반에 1인 남성 중심 서술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화자가 2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여성 화자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다. 최근 10년 동안은 여성 화자가 더 많다. 이는 여성작가의 부상과 관련이 깊다. 역대 총 31명의 유리열쇠상 수상 작가를 놓고 보면 남성이 22명, 여성이 9명으로 남성이 두 배 이상 많다. 첫해인 1993년부터 2015년까지는 남성 작가의 독주로 23년간 여성 작가는 1994년 김 스모게(Kim Småge), 1997년 카린 포숨(Karin Fossum), 2001년 카린 알프테옌(Karin Alvtegen) 세 명 뿐이다. 최근에는 여성 작가의 강세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 여성이 수상했다.

노르딕 누아르의 시조로 불리는 세발과 발뢰의 『로재나』에서 로재나는 피해자의 이름이다. 스웨덴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인, 휴가를 보내러 온 미국인 로재나의 이름과 신원을 알아내는 데만 소설의 반이 지나간다. 해결자인 화자 1인, 가해자 1인, 피해자 1인의 단순한 구성이다.

1990년대 주로 사건의 해결자인 남성 1인 화자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단순한 구조에서, 2000년대 들어 2인의 화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6년 수상작인 밀레니엄 시리즈 이후부터는 남성과 여성 화자가 각각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2018년 수상작인 카밀라 그레베의 『애프터 쉬즈 곤』에는 3인의 화자가 등장했다. 20대의 신참 여자 경찰, 알츠하이머를 앓는 60대 베테랑 여자 경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10대 소년이 각각 해결자, 피해자, 목격자로 번갈아 가며 각자의 시점에서 이야

기와 사건을 서술해 나간다. 피해자, 가해자, 수사관 등 여러 명의 화자가 각기 다른 입장에서 한 사건을 서술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 이야기를 엮는 등 입체적인 구성이 최근의 특징이다. 과거에 비해 피해자 관점의 서술이 늘었는데 인물 중심 서사가 특징인 노르딕 누아르는 화자가 다자화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부록 참조).

#### 4.4 피해자와 가해자의 수와 성비 분석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로 여기던 범죄 소설 속 클리셰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이번 연구에서 가장 궁금했던 지점이다. 『로제나』 이후 노르딕 누아르 속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와 성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리열최상 수상작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다. 최근 작품일수록 사건이 복잡해지고 인물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음의 원칙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인해 집계했다.

-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이거나 반대의 경우 각각 추가
- 한 피해자가 복수의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한 경우라도 1인으로 취급
-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는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여야 함
- 화자/피해자 또는 화자/가해자의 경우 각각 추가
-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입는 피해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피해의 경우 피해로 간주하지 않음. 다만 의도적으로 목숨을 해하려는 독립적인 시도가 있었을 때는 가해/피해로 보고 각각 가해자/피해자에 추가
- 정당방위는 가해로 간주하지 않음

<표 4> 유리열쇠상 수상 작품별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통계

연도	작가 성별	작가	제목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특이점
				여	남	여	남	
1965	여+남	마이 세발, 페르 발뢰	로제나	-	1	1	-	외국인 여성
1993	남	페터 회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	1	1	1	어린이
1997	여	카린 포숨	돌아보지 마	-	1	1	2	유아/10대
1998	남	요 네스뵈	박쥐	-	1	2	2	성소수자
2002	남	아날두르 인드리다손	저주받은 피	-	2	2	2	가해자=피해자
2003	남	아날두르 인드리다손	무덤의 침묵	-	2	2	3	가정폭력
2005	남	안데슈 루슬룬드, 버리에 헬스트럼	비스트	-	2	3	-	여아
2006	남	스티그 라르손	여자를 증오했던 남자들	1	3	2	1	피해자=가해자
2008	남	스티그 라르손	별집을 발로 찬 소녀	1	3	1	2	학대 (가정/시스템)
2009	남	요한 테오린	가장 어두운 방	-	1	2	-	약물중독자
2010	남	유시 아들레르올센	유리병 편지	-	1	5	6	어린이 (종교집단)
2012	남	에리크 발뢰	일곱 번째 아이	1	2	5	1	입양아동
2013	남	예른 리르 호르스트	사냥개자리	-	1	3	1	10대 소녀
2017	여	멀린 페르손 지올리토	나의 다정한 마야	-	1	2	5	여성, 이민자
2018	여	카밀라 그레베	애프터 쉬즈 곤	1	1	3	1	이민자, 지능장애
2019	여	스티나 약손	실버로드	-	2	3	-	지역 폐쇄집단
				<b>4</b>	<b>25</b>	<b>37</b>	<b>27</b>	

1993~2022년까지 한국어로 출간된 유리열쇠상 수상작 15편과 1965년 작품인 『로제나』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와 성비를 정리했다. 분석 대상 중 여성 가해자가 4명인데 반해 남성 가해자의 수는 2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1993년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부터 2005년 수상작인 『비스트』까지는 가해자가 모두 남성이다. 여성 가해자로 등장한 첫 번째 인물은 2006년 수상작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의 리스베트 살란데르다. 리스베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등장하는데 밀레니엄 시리즈를 관통하는 전개 양상이 복수극이라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가 되는 구조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변하는 구조는 2002년 수상작인 『저주 받은 피』, 2003년 『무덤의 침묵』, 2005년 『비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시리즈는 여러모로 범죄소설계에 획을 그은 작품이다. 남성 중심의 범죄소설계에 강하고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 출현을 알린 작품이기도 하고, 화자이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복합적 인물을 창조한 면에서도 그렇다. 유리열쇠상 수상작의 주인공 절반가량이 형사이고 시리즈물의 경우는 모두 경찰물인 데 비해 형사 시스템의 바깥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사건의 해결을 이끄는 구조를 확립한 작품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경우 여성이 37명, 남성이 27명이다. 여성 피해자의 수가 더 많지만, 가해자에 비하면 차이가 작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성범죄이거나 가정 폭력과 관계된 범죄가 많았다. 피해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가 많은데 주로 가정폭력이나 납치 사건의 피해자로 등장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 중에 성소수자, 이민자가 등장한다. 결국 약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소설 속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작품 속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를 마인드맵으로 그리며 특이한 점을 확인했다. 피해자 중에 애초부터 범죄의 목표가 된 성인 남성은 한 명도 없었다. 성인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가해자와 충돌하다가 입은 피해이거나, 사건을 목격해 가해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쳤거나, 피해자가 개인적 이유로 복수를 한 경우다. 남성의 경우 맥락 없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다음에 인용한 것과 같은 상황은 여성의 몫으로 남성에게는 해당이 없다.

“그는 뭘 하고 있지?” 모르텐P가 물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가 단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한 명 한 명을 선별해 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모두가 젊은 여성이었다. (예르리르 호르스트, 2019, p. 295)

『로제나』, 『박쥐』, 『저주받은 피』, 『사냥개자리』, 『비스트』, 『애프터 쉬즈콘』, 『실버로드』에서 여성 피해자는 낮모르는 이의 범죄 표적이 되었다. 한편 분석 대상 어떤 작품에서도 남성이 이유 없이 낮선 이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 4.5 여성 인물에 대한 묘사

여자는 맨몸이었고 장신구를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햇볕에 탄 자국으로 보아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한 것 같았다. 골반이 넓고 허벅지가 튼실했다. 굵고 검은 거웃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작은 가슴은 살짝 늘어졌고, 큼지막한 젖꼭지는 색이 짙었다. 허리에서 엉덩이뼈까지 굵힌 자국이 붉게 나 있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점도 흉터도 없었고, 살갓도 매끈했다. 손발이 작았고 매니큐어는 칠하지 않았다. 얼굴은 물에 불어 생전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눈썹은 두껍고 진했으며, 입은 좀 큰 편이었다. 중간 길이의 검은 머리카락이 머리통에 찰싹 들러붙어 있었다. 흐트러진 한 타래는 그녀의 목에 걸쳐져 있었다. (마이 세발·페르 발뢰, 2017, p. 5)

『로제나』에서 피해자인 로제나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피해자에 대한 서술이 적나라하고 자세해 마치 누드 화보를 묘사한 것 같다. 『로제나』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인격이 아니다. 시신을 물체처럼 대상화하고 말 그대로 사건의 요소로 취급하고 있다.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 인물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지만 어떤 범죄소설 속에서도 남성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유독 여성 인물을 묘사할 때만 그의 외모나 차림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기술한다. 반면 남성 인물의 경우 콧수염

을 기른다거나 머리색, 키나 몸집 정도가 자주 등장한다. 여성 등장인물의 경우 외모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남성 등장인물은 외모보다는 말수가 적다거나, 무뚝뚝한 성격이라든지 하는 식의 직접적 서술이 주를 이룬다.

1993년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이후 내리 남성 형사가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이끄는 작품이 수상을 했다. 그러나 동료 중에 여성 형사는 없었다 2003년 『무덤의 침묵』에서 피해자 여성과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이렇게 두 사람이 화자로 이야기를 이끄는 구조가 처음 등장했다. 2002년, 2003년 수상작인 아날두르 인드리다손의 『저주받은 피』와 『무덤의 침묵』에는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여성 인물이 나온다. 주인공인 에를렌두르 형사 반장의 동료 중 한 사람으로 ‘몇 안 되는 여자 형사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린보르그다.

엘린보르그의 나이는 분명치 않았다. 마흔은 넘어 보였다. 군살 없이 탄탄한 체격이지만 먹는 것을 좋아했다. 한 번 이혼했고 아이 넷을 키웠는데, 그중 위탁 아동 하나는 이제 집을 떠났다. 그녀는 요리를 좋아하는 자동차 정비공과 재혼해서 그라바르보귀르의 작은 타운 하우스에서 남편과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오래전에 지질학을 공부했지만 그 분야에서 일한 적은 없었다. 레이카비크경찰서에서 여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이 되었다. 그녀는 그 몇 안되는 여자 형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아날두르 인드리다손, 2021, pp. 20-21)

인용문에 등장하는 엘린보르그는 보통 범죄소설에 나오는 여성 인물과 사뭇 다르다. 과거 범죄소설 속 여성 인물에 대한 묘사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외모에 치중해 있었다. 생김새와 옷차림에 대해 그림으로 그럴 듯 자세히 묘사하고 난 후에는 신분, 말투 등 사회적 고정관념이 규정하는 매력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무덤의 침묵』속 엘린보르그에 대한 묘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엘린보르그가 일하는 방식이나 태도는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좋은 동료인지를 부각한다. 엘린보르그에 대한 묘사는 성중립으로 보아도 될만한 것이 그를 남성이라고 바꾸어 생각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다. 과거 범죄소설 속, 사건 현장보다는 사무 행정을 담당하거나 남자 형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의견을 내는 소극적 여성 경찰과는 완전히 다르다. 엘린 보르그는 동료인 남성 형사와 동등하게 일하며 때로는 수사를 주도한다. 직감이 뛰어나고 증인 신문에 있어서 누구보다 믿을만하다.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고 수사를 서두르고, 일에 대한 열정으로 휴가 중 만삭의 몸으로 부검에 참여하기도 한다. 에를렌두르가 개인적인 난관에 빠졌을 때도 담담히 지켜보며 동료애를 발휘해 사건을 진척시키는 등 이야기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12년 수상작인 『일곱 번째 아이』에는 여성 가해자가 나온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마리는 보육원 같은 방에서 지냈던 아이들을 추적하며 망상 속에 산다. 마리는 냉철하고 집요하다. 주저함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조정하는 살인 교사도 서슴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내가 살인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건 바로 그때였다. 비록 코끼리 방의 내 친구들은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완전히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 이게 유일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에리크 발뢰, 2016b, p. 470)

내가 —무기도 없었고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어찌다가 살짝 밀친 걸로도 세 명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쓴 총알이 간발의 차이로 빛나 갔을까? (에리크 발뢰, 2016b, p. 471)

여성의 외모를 묘사해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은 페미니즘 소설로까지 불리는 밀레니엄 시리즈도 예외가 아니다. 2006년 수상작인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중 주인공 리스베트 살란테르에 대한 묘사다.

그가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가장 유능한 조사원이 거식증 환자처럼 비쩍 마른데다 바짝 커트한 머리에 코와 눈썹에는 피어싱을 한 창백한 여자라는 사실이었다. 목에는 2센티미터쯤 되는 말벌 문신이 있었

고 왼쪽 이두박근과 발목에는 끈 모양 문신을 두르듯 새겼다. 가끔 탱크톱을 입고 나타나면 어깨뼈 위에 새긴 큼직한 용 문신을 볼 수 있었다. 머리는 원래 적갈색이었는데 까마귀처럼 새카맣게 물들이고 다녔다. 하드록 페저리들과 한 일주일 신나게 어울려 다니다가 불쑥 나타난 듯한 모습이 었다...입은 제법 컸고 코는 작은데 광대뼈가 솟아서 ... 행동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통찰력이 뛰어난 아가씨 ... (스티그 라르손, 2017b, pp. 50-51)

한편 리스베트와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인 미카엘 블롬크비스트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아래와 같이 짙막하게 나온다.

그녀는 책을 덮고 뒤표지에 있는 저자 사진을 보았다. 옆에서 찍은 미카엘의 얼굴이었다. 사진작가가 셔터를 눌렀을 때 바람이 불었을까, 아니면 디자이너 크리스테르가 포토샵으로 손을 좀 봤을까? 밝은 갈색 앞머리가 이마 위에서 멋지게 훑날리고 있었다. 조금 빼딱한 미소를 머금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의 장난기 어린 시선에는 나름의 매력 또한 없지 않았다. 흠, 안되셨군! 꽤 미남이신 분이 감옥에서 석 달을 폭 썩게 됐으니 ... (스티그 라르손, 2017b, p. 127)

그 밖에 미카엘에 대한 소개는 그의 행동이 대신한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다든지, 리스베트와의 첫 만남에서 리스베트가 화장실에만 동안 엉망인 리스베트의 개수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비우고 식탁을 행주로 닦는 등의 행동을 통해 그가 다정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드라마만 아르만스키에 대한 서술에는 외모가 등장하나 이는 개인을 설명한다기보다 이민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현재 그의 여권은 그를 스웨덴 국민으로 명기하고 있지만 여권 사진이 보여주는 얼굴은 전형적인 스웨덴인이 아니었다. 검은 수염으로 덮인 각진 턱에 관자놀이뼈가 희끗한 다부지고도 이국적인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아랍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지만 그의 몸에 아랍인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종우생학에 미친 작자들이 보았다면 주저 없이 ‘열등한 인간 재료’라고 분류해버렸을 유전자의 집합소라 할 수 있다. (스티그 라르손, 2017b, p. 44)

과거에는 여성이 주로 피해자로 등장했으나 밀레니엄 시리즈에는 다양한 직업의 유능한 여성이 여럿 등장한다. 방예르 기업의 후계자가 되는 하리에트 방예르, 미카엘을 도와 밀레니엄의 편집장으로 일하는 에리카 베르예르, 미카엘의 동생으로 리스베트를 변호하는 안니카 잔니니 등 천재 해커 리스베트 이외에도 매력적이고 똑똑한 여성이 여럿 등장한다. 리스베트에 대한 묘사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에는 특별히 외모에 집중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성격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다.

아래는 재판 전 안니카를 무시하는 검사와의 대화, 이어서 검사의 기소 내용을 재판에서 하나하나 반박해 승소를 이끈 후 안니카가 미카엘과 나누는 대화다. 당당하고 여유 있는 성격이 대화로 드러난다.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죠.”

안니카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 검사님은 제가 리스베트에게 만족스러운 변호를 제공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신다는 얘기죠?”

“누군가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난 당신의 능력을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스티그 라르손, 2017b, p. 660)

“오늘 나, 정말 멋졌던 것 같아. 페테르를 아주 박살내버렸어.”

“말했잖아. 이 재판에서 널 당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결국 이긴 여자들이 당하는 일상적인 폭력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첩보요원이나 비밀 조직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눈치를 보니 아주 환상적이었던 모양이야? 리스베트는 분명 무죄를 선고 받을 거야.”

“응. 의심할 여지없지.” (스티그 라르손, 2017a, p. 782)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16 작품 중 여성 가해자는 단 세 명뿐이다. 『여자를

중요한 남자들』, 『별집을 발로 찬 소녀』의 리스베트 살란데르와 『일곱 번째 아이』의 마리 라데고르, 『애프터 슈즈 콘』의 마르가레타다. 리스베트 살란데르는 자신을 가해한 이에게 적극적으로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마르가레타는 아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가해를 한다. 반면 마리 라데고르는 별 이유 없이 자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가해를 한 유일한 여성이다. 한편 마리가 가해한 인물은 모두 여성이다.

19세기 후반 서구 범죄학에서 범죄는 남성적인 행위라는 관정을 내리고 여성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계정민, 2010, p. 932) 따라서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해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독립적, 이성적, 냉철함 등은 남성에게 속하는 특성으로 여겨 여성 탐정은 독신이거나 기형이거나 근육질에 콧수염이 나는 등 여성적인 면을 제거한 유형이 많다는 근거를 댔다.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그럴 리가 없으며 남성적인 특징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유리열쇠상 수상작 중 몇몇 작품에도 드러나는데 『밀레니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리스베트 살란데르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양성애자이고, 『일곱 번째 아이』에서 자신을 버린 부모를 가해하는 마리 라데고르는 신체와 정신 모두 장애가 있으며, 『유리병 편지』의 유능한 조사원 형사인 로사는 다중인격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성역할에 대한 통념은 희석되었다. 현실에서 흔히 만날 수 있지만 소설에서는 새로운 유형인 평범한 여성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주받은 피』와 『무덤의 침묵』의 엘린보르그, 『밀레니엄』의 에리카 베르예르, 안니카 잔니니, 『유리병 편지』의 이사벨 옌손, 『사냥개자리』의 리네 비스팅, 『애프터 슈즈 콘』의 한네와 같이 평범하고 유능한, 성별에 따른 역할이 아닌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인물 즉 특별히 성별로 구분할 필요 없는 등장인물에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애프터 슈즈 콘』에는 화자가 세 명 등장한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10대 소년 제이크, 불법 이민자를 부모로 둔 20대 여자 경찰 말린, 뛰어난 프로그래머인 동시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60대 여자 형사 한네다. 아래는

제이크, 말린, 한네를 각각 서술하는 구절이다. 『로재나』에 기술된 외모에 집착한 묘사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내 이름이 제이크이고 오름베리 같은 후미진 곳에 살고 불행히 언젠가 자라서 남자가 되더라도, 드레스를 입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드레스는 그냥 드레스일 뿐이다. 좋아하고 싶으면 좋아해도 아무 문제없는 천 쪼가리일 뿐.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죽음은 아주 오래가니까.

“네 그건 저였어요.”내가 말했다.

“전 드레스를 좋아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에프터 쉬즈 곤』 p.478

우리 엄마.

나하고 너무 다른. 키 큰 나와는 달리 키가 작은. 흑발인 나와는 달리 금발인.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나와는 달리 차분한...내가 얼굴을 잃고 살해당한 보스니아 무슬림 여성의 딸이 아닌 것처럼. 돌무덤에서 내가 발견한 유골이 내 친언니가 아닌 것처럼. 망가진 손을 가진, 이제는 사라져 버린 가족의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을 고이 간직한 에스마가 내 이모가 아닌 것처럼. (카밀라 그레베, 2019, p. 489)

내가 그동안 같이 일한 모든 사람을 통틀어 한네는 이런 상황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스톡홀름 출신인 한네는 다정하고 말수가 적으며 병적일 만큼 빈틈이 없는, 60대의 범죄 프로파일러다. 미팅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작은 갈색 노트에 끊임없이 메모를 했다. (카밀라 그레베, 2019, p. 39)

2016~2021년까지 유리열쇠상 수상자는 모두 여성이다. 자연스레 화자도 여성이 주를 이뤘다. 소설이 다루는 범죄의 특성상 여전히 여성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해자 중에는 남성이 많지만, 최근 작품을 보면 주인공을 제외한 주변 인물 대부분은 성중립적이다.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반드시 여성이거나 남성이어야만 하는 인물이 없어 등장인물의 성별을 바꾸어도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다. 『나의 다정한 마야』

속 검사의 성별이 달라진대거나 『실버로드』에서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는 아빠를 엄마로 바꾼다고 해도 줄거리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민자나 성소수자는 여전히 매우 전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민자는 북유럽 정서에서 불편할 정도로 성공 지향적이거나, 언어를 잘 못해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고유의 문화를 고집하는 등의 존재로 나온다. 주로 게이로 등장하는 성소수자는 깊은 화장과 가발을 두르는 등 외모를 부각했다.

## 5. 결론

이번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북유럽 문학의 인기를 견인한 범죄소설인 노르딕 누아르의 기원과 특징을 짚어 보았다. 노르딕 누아르는 1965년 발표된 마이세발과 페르 발뢰의 『로재나』를 시작으로 사회상을 충실하게 반영하며 평범한 인물의 삶과 내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는 형식을 채택했다. 1992년부터 매년 가장 뛰어난 북유럽 범죄소설에 수여하는 유리열쇠상 수상작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사회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노르딕 누아르에서 ‘여성=피해자’, ‘남성=가해자’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남성 해결자/화자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상작 중에 한국어로 출판된 작품에 『로재나』를 포함해 총 16 작품에 백텔 테스트를 적용한 결과 1965년 작품인 『로재나』, 1998년 작 『박쥐』, 2005년 작 『비스트』 이렇게 세 작품이 백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로재나』에 등장하는 여성 셋 중 둘은 피해자였다. 피해자가 아닌 여성은 함정 수사를 위해 수소문해 동원한 여자 경찰이 유일했다. 『박쥐』 역시 『로재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비스트』는 남성 수용 교도소가 이야기의 주 무대라 비중 있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

분석 대상작 16편의 화자/가해자/피해자의 수와 성비를 조사해 통계를 냈다. 분석 대상이 분포한 30여 년 동안 여성 등장인물의 역할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여성 화자가 늘었으며 과거에는 주로 피해자로만 등장하던 여성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인물이 등장했다. 주변

인물 중에도 다양한 직업과 극의 흐름을 바꾸는 주요인물에 여성이 늘었다. 한편 여전히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0년대 들어서 피해자에 어린이, 청소년, 성소수자, 이민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작가의 성비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총 31명의 유리열쇠상 수상 작가 중 남성이 22명, 여성이 9명으로 남성이 두 배 이상 많다. 하지만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연거푸 여성이 수상하며 최근 여성 주도로 볼 법한 작품이 늘었다. 여성 화자와 등장인물 중 여성 인물의 수가 늘었고 직업이 다양해진 것도 비슷한 시기다.

초창기에는 수사관 중 남성이 대다수라 여성 경찰은 함정수사에 동원하기 위해 수소문을 해야 하는 수준이었으나(『로제나』) 이후 제 몫을 톡톡히 하는 동료 형사(『저주받은 피』, 『무덤의 침묵』, 『유리병 편지』)로 간간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경찰이 아닌 각각의 직업을 갖고 사건을 이끌거나 해결하는 주인공(『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별집을 발로 찬 소녀』, 『유리병 편지』, 『일곱 번째 아이』, 『나의 다정한 마야』, 『애프터 쉬즈 콘』, 『실버 로드』)으로 진화했다.

과거에는 주인공은 물론 주변 인물 중에도 여성이 별로 없었다. 기껏해야 직업이나 성격에 있어 성별의 전형을 드러내는 역할로 등장했다면 최근에는 성별을 바꿔서 설정해도 이상하지 않은 성중립적인 인물이 늘고 있다. 형사, 검사, 판사, IT 전문가, 기관장 등의 직업은 물론 주요 인물 중에 임신부(『저주받은 피』, 『무덤의 침묵』,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가 등장하는 것도 이색적이었다. 과거 여성에 대한 묘사는 외모에 치우쳤으나 시간이 갈수록 성격, 태도, 유능함 등을 드러내는 장면이 늘었다.

노르딕 누아르 안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목적이나 화자와 가해자, 피해자 수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이야기 구조의 진화도 엿볼 수 있었다. 화자가 여럿이 되면서 이야기의 구조가 복잡해졌다. 두 인물의 이야기가 각각 진행되다가 겹치기도 하고 상관없어 보이던 인물 간의 관계가 사건과 함께 드러나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노르딕 누아르의 특징인 인물 중심 구도가 더욱 뚜렷하고 정교해졌다.

마인드맵을 활용해 각 작품의 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가해자와 모두 지인 관계인 남성 피해자의 경우와 달리 여성 피해자는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거나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남성 피해자 중에는 우연히, 낮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원한 관계가 있거나, 사건에 가담했거나, 사건 현장을 목격해 제거되어야 하는 모종의 이유가 있었다. 반면 여성 피해자 중에는 길을 지나다, 가게에서, 직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또는 영문도 모른 채 괴한에게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북유럽 사회 곳곳에 여성 진출이 늘고 평등이 확장된 지난 30여 년간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 인물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인구의 절반으로 존재함에도 여성이 줄거리에 거의 등장하지 않던 1965년 로제나의 시대와 비교하면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 인물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역할로 등장한다. 비단 수동적 존재(주로 피해자)에서 적극적인 주체(가해자, 해결자)로의 변화뿐 아니라 늘어난 여성의 직업군, 가정과 조직 내의 역할과 문제해결 방식 등 사회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노르딕 누아르 속 여성의 역할도 북유럽 사회와 함께 진화했다.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연구해 봄 직한 여러 주제가 가치를 뽐어나갔다. 노르딕 누아르의 사회상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북유럽의 실제 범죄 통계와 노르딕 누아르 속 통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추후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대상을 늘려 시대별로 집계해 분석한다면 문학이 현실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지, 범죄에 있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본, 한국, 영미 등지의 범죄소설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작품 속 화자, 피해자, 가해자의 성비 통계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연구도 기대해 볼만 하다.

최근 들어 여성 작가가 유리열쇠상을 내리 6년째 수상할 정도로 여성 범죄 소설가의 작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여성화자가 늘고 다양한 직업과 역할의 여성 등장인물이 늘어난 것도 비슷한 시기다. 하지만 작가의 성별에 따라 작품의 구성과 인물의 역할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분석 대상인 유리열쇠상 수상 33 작품 중 여성작가의 작품은 9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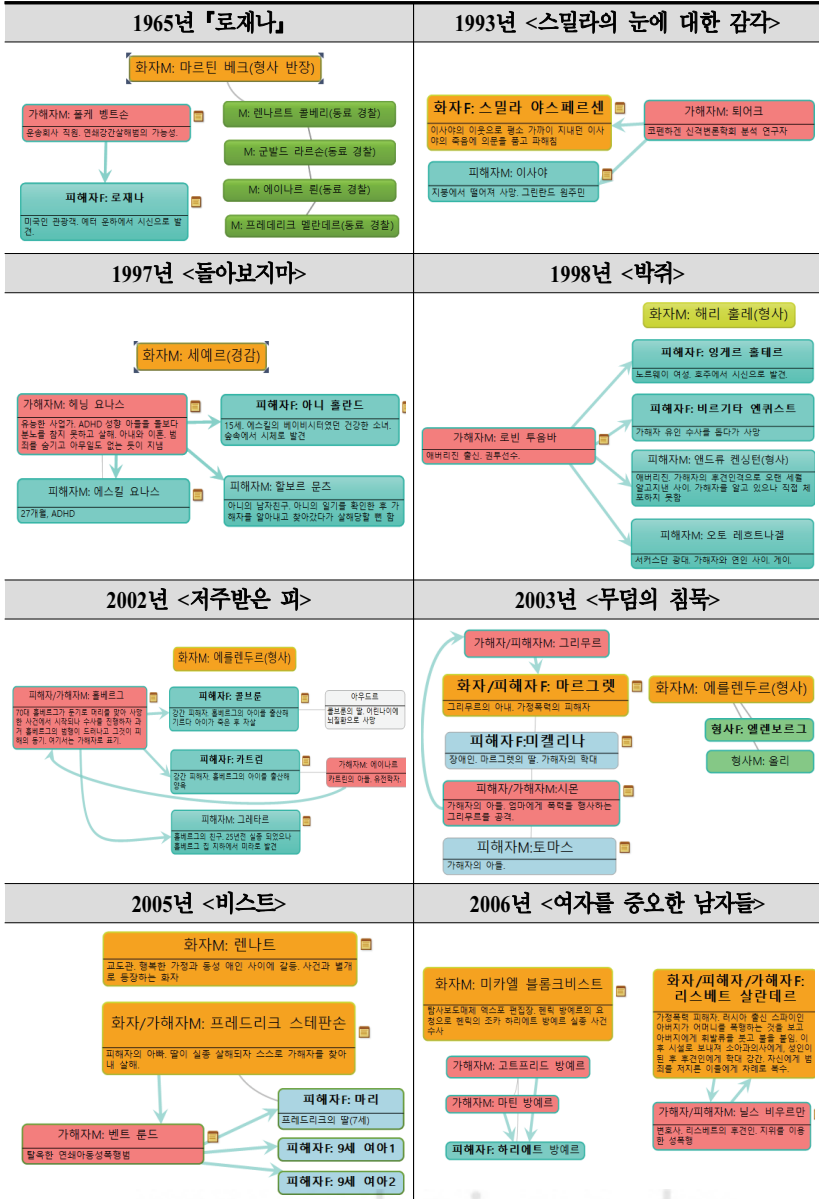
으로 그 관련성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릴 수 없어 추후 관련 연구를 기대한다. 이 글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연구는 문학, 젠더연구, 사회학, 범죄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계정민(2010). “젠더, 범죄, (여성)탐정: 초기 영미 추리소설의 성정치학”. 『영어영문학』, 56(5), 931-946.
- 김윤지(2019). “할리우드 흥행의 비밀 ... 진화하는 여성 캐릭터”. 이코노미인사이드, <http://www.hani.co.kr/arti/PRINT/885361.html>(검색일: 2023년 5월 5일)
- 마이 세발 · 페르 발뢰(2017). 『로재나』. 김명남 옮김. 파주: 엘릭시르.
- 멀린 페르손 지올리토(2018). 『나의 다정한 마야』. 황소연 옮김. 서울: 검은숲.
- 스티그 라르손(2017a). 『별집을 발로 찬 소녀』. 임호경 옮김. 파주: 문학동네.
- 스티그 라르손(2017b).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임호경 옮김. 파주: 문학동네.
- 스티나 약손(2020). 『실버 로드: 사라진 소녀들』. 노진선 옮김. 서울: 마음서재.
- 아날두르 인드리다손(2007). 『저주받은 피』. 전주현 옮김. 서울: 영림카디널.
- 아날두르 인드리다손(2021). 『무덤의 침묵』. 고정아 옮김. 파주: 엘릭시르.
- 안데슈 루슬룬드 · 버리에 헬스트럼(2011). 『비스트』. 이승재 옮김. 서울: 검은숲.
- 에리크 발뢰(2016a). 『일곱 번째 아이 1』. 고희관 옮김. 서울: 현대문학.
- 에리크 발뢰(2016b). 『일곱 번째 아이 2』. 고희관 옮김. 서울: 현대문학.
- 예른 리르 호르스트(2019). 『사냥개자리』. 이동운 옮김. 파주: 엘릭시르.
- 오원환 · 오중환(2013) “소설 <밀레니엄>의 영화로의 재매개 현상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26, 71-106.
- 요 네스뵈(2014). 『박쥐』. 문희경 옮김. 서울: 비채.
- 요한 테오린(2018). 『가장 어두운 방』. 권도희 옮김. 파주: 엘릭시르.
- 유시 아틀레르울센(2019). 『유리병편지 2』. 정장진 옮김. 파주: 열린책들.
- 유인혁(2018). “범죄, 지리, 젠더: 김내성의 『마인』과 근대적 탐정소설의 세 가지 키워드”. 『여성문학연구』, 44, 47-79.
- 조승예(2018). “여성 탐정이 ‘나이 많은 비혼’인 이유는?”.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05>(검색일: 2023년 5월 5일)

- 줄리언 시먼스(2012). 『블러디 머더』. 김명남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 카린 포숨(2007). 『돌아보지마』. 김승욱 옮김. 파주: 들녘.
- 카밀라 그레베(2019). 『애프터 쉬즈 곤』. 김지선 옮김. 서울: 크로스로드.
- 페터 회(2005). 『스틸라의 눈에 대한 감각』. 박현주 옮김. 서울: 마음산책.
- 홍재웅(2019). “스웨덴 소설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에서 영화로 매체 전환된 두 편의 영화 비교 분석”. 『스칸디나비아 연구』, 24, 93-126.
- Bergman, K. (2014). *Swedish Crime Fiction: The Making of Nordic Noir*. Mimesis International.
- Erdmann, E. (2009). Nationality international: Detective fic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M. Krajenbrink & K. M. Quinn (Eds.), *Investigating Identities: Question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Crime Fiction* (pp. 11-26). Amsterdam: Rodopi.
- Garcia, A. (2016). *Emotions in Contemporary TV Ser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yward, K. J., & Hall, S. (2021). Through Scandinavia, darkly: A criminological critique of Nordic Noir.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61(1), 1-21.
- Kerridge, J. (2015). The couple who invented Nordic Noir. *The Telegraph*. July 19.
- shift7. (2018). Female-led films outperform at box office for 2014-2017. Retrieved from <https://shift7.com/media-research/#arrow-jump> (Accessed: 27 May 2023)
- Stougaard-Nielsen, J. (2016). Nordic noir in the UK: Allure of accessible difference. *Journal of Aesthetics & Culture*, 8, 1-11.
- The Economist. (2010). Scandinavian crime fiction - Inspector Norse - Why are Nordic detective novels so successful?. *The Economist*, 11 March. Retrieved from <http://www.economist.com/node/15660846> (Accessed 5 May 2023)

《부록》 분석 작품의 화자-가해자-피해자 인물관계도





<Abstract>

## **Evolution of Female Characters in Nordic Noir:** From Roseanna to Malin via Lisbeth Salander

Soojeong Ha\*

Scandinavian crime fiction has gained immense popularity since the 1990s, becoming a global phenomenon in the 2000s. Known for its unpretentious narrative style, authentic dark atmosphere, and complex characterization, Nordic Noir stands apart from its predecessors by featuring ordinary police stations and their everyday problems reflecting reality. This paper explores the origins of the term “Nordic Noir” and delves into its defining features.

The novel “Roseanna,” written by Maj Sjöwall and Per Wahlöö in 1965, played a pivotal role in shaping the future of Nordic Noir and influencing subsequent writers. The study focuses on the winners of the Glass Key Award, an annual literature award given to a Nordic crime novel, compiling statistics on the gender of narrators, assailants, and victims. A character tree i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haracters.

Traditionally portrayed as victims, female characters have now become more diverse in terms of their professions and roles within Nordic Noir narratives. In the 2000s, stories led by female protagonists became increasingly common, while minors, immigrants, and LGBTQ+ characters also started appearing as victims. However, male characters still dominate the role of assailants. Notably, every male victim has a connection to their assailant, providing a motive for their elimination. In contrast, female victims are often targeted by strangers or passersby encountered during their daily routines.

---

\* Nordic Research Institute

The evolution of female characters in Nordic Noir, from the silent “Roseanna” to the resilient Lisbeth Salander and beyond, not only reflects the contemporary Nordic society but also spearheads the changing landscape of crime fiction.

While female characters were initially limited to victim roles, they have now gained more agency and representation, showcasing a broader range of experiences and occupations. However, the prevalence of male assailants highlights persistent gender imbalances. Understanding these shifts and trends allows for a deeper exploration of the complexities within Nordic Noir and its impact on contemporary crime literature.

**Key Words: Nordic Noir, Scandinavian crime fiction, Roseanna, Millenium trilogy, glass key award, Lisbeth Salander, Detective Novel**

---

성명: 하수정(Soojeong Ha)  
소속: 북유럽연구소 소장  
E-mail: fjallfina331@gmail.com

논문 접수일: 2023.05.30.

논문심사 완료일: 2023.06.23.

수정원고 접수일: 2023.06.28.

게재 확정일: 2023.07.03.